인문연구 제92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0. Vol. 92, No. 1, pp.129~171
http://dx.doi.org/10.21211/JHUM.92.5

통감부시기 역사교과서 편찬과 교과서 검정제*

-『初等本國略史』 검정청원본과 출판본 분석을 중심으로 -

김소영**

〈차 례〉

1. 머리말
2. 자국사 교육 실시와 역사교과서 편찬
3. 교과서검정제 실시와『초등본국약사』발간
4.『초등본국약사』의 일본 관련 서술과 인식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08년 8월「교과용도서검정규정」이 제정, 반포된 후 박정동이 저술한『초등본국약사』의 검정청원본을 분석하여 교과서 검정 과정과 검정 기준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최종 출판본과 비교하여 학부 검정을 거치며 책의 구성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8020707).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무처, 조교수

이나 내용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초등본국약사』는 사열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만을 수정하고 교과서 사용 및 출판이 허가되었는데, 이는 검정청원본 단계부터 자기 검열을 통해 내용을 서술하여 검정 기준, 특히 한일관계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나 표현, 반일 감정을 고취하는 내용의 유무를 판단하는 '정치적 기준'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초등본국약사』와 유사한 분량과 시대 하한으로 당대사를 서술했던 현채의 『동국사략』, 유근의 『신찬초등역사』 등과 비교했을 때 『동국사략』은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서술로 인해 검정과 검열 후 발매와 반포를 금지 당했다. 반면 『초등본국약사』와 『신찬초등역사』는 일본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우호적으로 서술하고, 한일관계를 갈등이나 대립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설명했다.

이처럼 『초등본국약사』, 『초등대동역사』, 『신찬초등역사』와 같이 통감부가 교과서 검정제를 실시한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역사교과서만이 검정을 통과하여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1910년 국권 상실 이후 이러한 교과서들마저도 검정 무효화되면서 사용이 금지되었고, 한국인에 의한 자국사 교육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주제어: 박정동, 초등본국약사, 초등대동역사, 신찬초등역사, 동국사략, 교과용도서검정규정, 교과서검정제, 역사교육

1. 머리말

갑오개혁기 조선정부는 서구식 학제를 수용하여 각급 학교를 설립하고 새로운 교과서를 편찬하는 등 근대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근대교육의 주된 교육목표는 근대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형성과 통합이었다. 근대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은 근대적 지식을 갖춘 인재이면서 동시에 애국심, 충군의식과 같은 국가의식, 그리고 동질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국민' 형성과 통합을 목적으로 한 근대교육, 국민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국어와 자국사 교육이었다. 국가구성원들에게 역사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게 하는 자국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갑오정권은 「소학교령」과 「소학교 교칙대강」에서 소학교 교수과목으로 '본국역사'를 포함한 역사교육을 실시하기로 정했다. 또 소학교에서 사용할 역사교과서를 편찬하기 시작했다.[1)]

1905년 을사늑약 체결로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자 교육자,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자국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어 갔다. 소학교, 중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역사교육이 본격화되면서 학부 편찬 역사교과서 외에 민간에서 역사교과서를 편찬하는 일도 증가했다. 학부가 통감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서 학부가 편찬한 역사교과서로는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역사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역사교과서를 저술, 편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2)]

통감부는 이와 같은 한국인들의 민족교육열을 막기 위해 일련

---

1) 김흥수, 「한말의 역사교과서 편찬」, 『역사교육』 33, 1983, pp.3~6.
2) 김흥수, 위의 논문, 1983, pp.12~19.

의 교육 관련 법령을 제정, 반포했다.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교과용도서검정규정」(1908), 「출판법」(1909)을 제정하여 교과서 내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역사교과서 중에도 교과서 검정과 검열을 받은 후 교과서 사용을 허가받지 못하거나 발간이 금지되는 경우가 빈번했다.[3)]

갑오개혁기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역사교육과 학부 편찬 역사교과서를 비롯해 1905년 이후 민간에서 저술, 편찬한 역사교과서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시기적으로는 갑오개혁부터 1905년까지,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역사교육을 정책인 측면에서 분석하거나 학부 및 민간 편찬 역사교과서들의 기본적인 서지사항, 서술 내용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1905년 이후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한국인들에 의해 많은 역사교과서가 편찬되었고, 통감부는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역사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펼쳤다는 점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다.[4)]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한국인과 통감부의 대립과 갈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련의 교육 관련 법령의 제정과 실시로 더욱 깊어져 갔다. 특히 역사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검정제 실시 이후 교과서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발간을 허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연구에서는 「교과용도서검정규정」에서 밝힌 검정 절차와 기준, 그리고 검정 실시 후 사용이 금지된 역사교

3) 문한별, 「일제강점기 초기 교과서 검열을 통해 본 사상통제의 양상」, 『Journal of Korean Culture』 44, 2019, pp.219~236.

4) 김흥수, 앞의 논문, 1983 ; 김여칠, 「1906년 이후의 국사교과서에 대하여」, 『역사교육』 36, 1984 ; 양정현, 「개화기 역사 교과서의 당대(19세기) 인식」, 『내일을 여는 역사』 35, 2009 ; 이신철, 「대한제국기 역사교과서 편찬과 근대 역사학」, 『역사교육』 126, 2013 ; 김경미, 「통감부의 초등학교 역사교육정책과 역사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9, 2011 ; 김두리, 「근대교육의 국가주의적 성격과 역사학습」,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과서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통감부의 교육 및 교과서 정책이 한국인의 민족교육을 막으려는데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반면 검정을 통과하고 발간된 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또 그간의 연구는 교과서 출판본만을 자료로 활용하여 교과서 검정 절차와 기준이 실제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역사교과서도 마찬가지로 검정 불허 혹은 검정 허가를 받은 교과서 출판본의 기본적인 서지사항이나 서술 내용을 분석하는 데에만 그쳤다. 최근에는 통감부 시기 교과서 검정청원본 자료가 발굴되어 검정 불허된 수신교과서와 독본교과서의 경우 검정 절차와 기준이 실제 검정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여 통감부의 교과서 통제와 교육정책의 실상을 밝히는데 기여했다.[5]

새로 발굴된 교과서 검정청원본 중에는 박정동이 저술한 『初等本國略史』의 검정청원본도 포함되어 있다.[6] 『초등본국약사』는 검정을 통과하여 교과서 사용을 허가 받은 역사교과서이기 때문인지 그동안 기본적인 서지사항 외에 교과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하지만 『초등본국약사』의 검정청원본과 출판본을 비교, 분석해 본다면 앞선 검정청원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교과서 검정 과정과 검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물론 검정 과정에서 사열원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교과서가 출간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등본국약사』 가 검정 허가 역사교과서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검정 불허 역사교과서들과 내용상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도 비교해

5) 김소영, 「근대 한국의 교과서 검정 제도 성립과 수신교과서 검정」, 『사림』 68, 2019 ; 「통감부 시기 교과서 검정제도와 독본교과서 검정 청원본 분석」, 『한국근현대사연구』 93, 2020.

6) 『초등본국약사』를 비롯한 교과서 검정청원본은 유길준 후손들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한 '유길준 관련 신자료'에 포함되어 있다.(최덕수 외, 『근대 한국의 개혁 구성과 유길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pp.32~34).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통감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실시한 목적과 한국의 역사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통제하려 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자국사 교육 실시와 역사교과서 편찬

갑오개혁 시기 갑오정권이 근대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추진했던 여러 개혁 정책 중 특히 역점을 뒀던 것은 근대교육의 실시였다. 새로운 국가의 구성원이자 개혁을 추진할 주체인 '국민'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근대적 학제를 수용하고 소학교를 시작으로 각급 학교를 설립해 갔다. 갑오정권은 소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학교령」과 소학교에서 가르칠 교과목의 교수 방향과 목표를 담은 「소학교교칙대강」을 반포했다. '국민' 형성과 통합을 위한 자국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국역사', 즉 자국사 교육을 공교육과정에 편성한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7]

「소학교교칙대강」 제7조에서 밝힌 '본국역사' 교육의 목표와 방향은 "국체의 대요", "국민된 지조"의 양성, 즉 '국민'을 형성하는 것이었다.[8] 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과서에 기술할 내용을 제시했고, 학부 편집국은 역사과목의 교수목표와 기술방향에 맞춰 1895년 관공립 학교용 역사교과서로 『조선역사』, 『조선역대사략』, 『조선약사』를 편찬했다. 이들 교과서는 기술된 내용의 수준과 분량을 고려해 볼 때 각기 소학교육용과 고등교육용으로 교수대상을 달리하여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학부는 소학교

7) 양정현, 앞의 논문, 2009, pp.153~159.
8) 『구한국관보』, 1895년 8월 15일, 학부령 제3호 「소학교교칙대강」.

육과 중등교육용으로 『동국역대사략』(1899), 『보통교과동국사략』, 『대한역대사략』(1899) 등을 편찬했다.[9]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지식인들도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역사교과서 저술과 발간이 더욱 활발해졌다. 지식인들은 국가구성원들이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는 것이 '국민' 형성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인식하면서 단군을 '민족' 공통의 시조로 하는 자국사 중심 역사 연구와 역사서, 역사교과서 저술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중국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역사교육을 비판하고 자국사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10]

신채호는 서구에서는 '국민'이 역사를 배워 국가의 영욕과 이해를 자신의 것과 일치시키며 '애국심'을 형성하게 되었지만 한국민은 사회의 상하계층, 또는 유무식자를 막론하고 국가의 역사에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해 '애국심'이 박약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한국민의 '애국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이, 성별,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역사에 관심을 갖고 교육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11]

또 이석용은 '역사와 국성의 관계'란 글에서 역사란 "자국의 언어로 자국의 문자를 역작하고 자국의 문자로 자국의 사적을 편성한 것"이라고 하여 역사가 곧 자국사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자국사를 통해 "인민의 자국성을 발양하며 자국상을 고취"해야 하며, "역사가 완전하면 국성이 또한 완전하고 역사가 불완전하면 국성이 역시 불완전"하다고 하여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12] 신채호와 마찬가지로 이석용도 세계 각국과 대한제국의

---

9) 양정현, 앞의 논문, 2009, pp.55~156.

10) 유영옥, 「개화기 국사 교과서의 年紀法」, 『역사와경계』 79, 2011, 116~120쪽 ; 이신철, 앞의 논문, 2013, pp.117~119.

11) 신채호,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속)」, 『대한협회월보』 3, 1908.6, pp.2~6.

12) 이석용, 「역사와 국성의 관계」, 『서북학회월보』 18, 1909.12, pp.35~37.

역사교육을 비교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기부터 역사교육, 즉 자국사교육을 실시하는데 반해 대한제국은 지금까지 중국사만을 교육하고 자국사를 교육하지 않아 자국을 낮추고 중국을 사대하는 '악습관으로 '국성'을 이루었다고 주장했다. 근래에 들어 자국사를 중시하여 자국사를 저술, 편찬하는 역사가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내용이나 분량면에서 '국성'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13]

이처럼 지식인들은 자국사교육이 '국민' 형성과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종래와 같이 중국사 중심의 역사교육이 아닌 자국사 중심의 역사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국사교육을 위해 시급한 일은 새로운 역사서, 역사교과서를 저술, 편찬하는 것이었다. 이에 신채호, 박은식, 현채, 김택영 등 많은 지식인들이 역사서와 역사교과서를 저술하기 시작했다. 사찬 교과서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김택영의 『동사집략』(1902)을 시작으로 김택영의 『역사집략』(1905), 최경환, 정교의 『대동역사』(1905), 현채의 『중등교과 동국사략』(1906), 국민교육회의 『보통교과 대동역사략』(1906), 원영의와 유근 『신정동국역사』 등이 편찬되었다.[14]

주요 역사교과서의 발간 시기를 살펴보면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즉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후 역사교과서 편찬과 발간이 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 의해 국권을 상실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일깨울 자국사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한국지식인들의 민족교육열을 막기 위해 통감부는 교육정책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통감부 교육정책의

13) 이석용, 「역사와 국성의 관계」, 『서북학회월보』 18, 1909.12, pp.35~37.
14) 유영옥, 앞의 논문, 2011, pp.117~118.

기본 방향은 민족교육을 억압하고 일본의 통치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통학교령」(1906), 「사립학교령」(1908), 「학회령」(1908), 「교과용도서검정규정」(1908). 「출판법」(1909) 등 일련의 교육 관련 법령을 제정, 반포하여 교육을 통제하려 했다.[15]

역사교육과 관련해서는 1895년 8월 「소학교령」에서 '본국역사'라고 했던 교과명을 「보통학교령」에서는 '지리역사'로 명명하고 '본국'이라는 말을 삭제했다.[16] 역사교과의 교수 목표도 "국체의 대요를 알게 하여 국민된 지조를 양성"(소학교교칙대강, 1895)[17] 하는 것에서 "사적의 대요를 가르쳐 국민의 발달과 문화의 유래와 인방의 관계 등을 지득"(보통학교령시행규칙, 1906)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지리역사'는 "특별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국어독본 및 일어독본에 소재한 바로 교수"하도록 규정했다.[18] 이에 따라 「보통학교 각 학년 교과과정 및 매주 수업시수표」에는 각 학년 지리와 역사 교과 과정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수업시수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이 한국인들의 역사교육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에 대해 학정참여관 미츠치 츄조(三土忠造)는 보통학교의 교과목이 과다하지 않도록 한 것이며 일본의 심상소학교에서도 일본지리와 일본역사는 수의과목이며, 고등소학교에서 필수과목이라고 반박했다. 또 학부에서 편찬한 『국어독본』에서 한국사의 흐름을 서술하여 내용이 적지 않으므로 교과서나 개별과목이 없다 하더라도 지리와 역사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19]

---

15) 김경미, 앞의 논문, 2011, pp.49~54.

16) 『구한국관보』, 1895년 7월 19일, 칙령 제145호 「소학교령」 ; 『구한국관보』, 1906년 9월 4일, 학부령 제27호 「보통학교령」.

17) 『구한국관보』, 1895년 8월 15일, 학부령 제3호 「소학교교칙대강」.

18) 『구한국관보』, 1906년 8월 27일, 학부령 제23호 「보통학교령시행규칙」.

19) 김경미, 앞의 논문, 2011, pp.51~52.

통감부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과서 편찬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국민들의 애국심, 민족의식을 고취하거나 반일의식을 고취할 만한 내용이 교과서에 기술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908년 제정, 반포된 「교과용도서검정규정」과 검정 기준을 살펴보면 학부, 실제로는 통감부가 교과서를 검정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학부는 교과서를 검정한 후 특히 역사, 국어, 수신과 같은 교과서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 충군의식을 고취하거나 일본에 대한 반감을 형성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술되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20]

교과서 검정제가 실시된 후 학부에 검정을 청원했던 민간 편찬 역사교과서 중에는 검정제 실시 이전에 발간되어 교과서로 사용되어 왔으나 검정 후 인가받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는데, 현채의 『중등교과 동국사략』이 그런 경우였다. 또 『초등대한역사』(정인호, 1908)와 『대동역사략』(유성준, 1908)과 같은 교과서는 검정제 실시 이후 저술, 편찬하여 검정을 청원했으나 교과서 사용과 발간을 허가받지 못했다. 박정동의 『초등대동역사』(1909)와 『초등본국약사』(1909), 유근의 『초등본국역사』(1908)와 『신찬초등역사』(1910), 안종화의 『초등본국역사』(1909) 등은 검정에 통과하여 한동안 교과서로 사용되었지만 병합 이후 다시 검정 무효 처분을 받게 되었다.[21]

이와 같은 검정 불허가, 검정 무효 처분을 받게 된 교과서, 불인가 교과서 목록은 1910년 11월 19일자 『조선총독부관보』의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고시 제72호와 1915년 12월에 개정된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교과용도서일람』에 77종의 "검정무효 및 검정불

20)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13, 14일 「교과서검정조사의 착안처」.
21) 문한별, 앞의 논문, 2019, pp.225~235.

허가 교과용도서"와 163종의 "불인가 교과용 도서" 목록에 수록되어 있다.[22]

비록 통감부기 교육을 통제해 가고 있었지만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아닌 '보호국'인 상황에서 한국인의 역사교육, 자국사교육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23] 통감부는 교과서 검정제를 실시하여 한국인에 의한 역사교과서 저술 및 출판을 최대한 억제하고 역사교육을 통제하려는 정책을 취했다. 1905년 이후 학부는 일본인 학정참여관의 감독하에 보통학교용 교과서를 펴냈지만 1909년 초까지 역사와 지리교과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독본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교수하기로 결정했다.[24] 따라서 이 시기 학부에서 새로 편찬한 역사교과서는 없었다. '국민' 형성과 통합 교육으로서 역사교육을 중시했던 한국지식인들, 교과서 저자 및 편찬자들은 이러한 통감부의 교과서 정책을 비난하며 역사교과서를 저술, 편찬했다.[25]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인들이 저술한 역사교과서 중에는 학부 검정 후 교과서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부는 사용이 허가되었다. 박정동의 『초등본국약사』는 검정제가 실시된 이후에 저술되어 검정을 통과하고 사용을 허가 받은 역사교과서였다. 검정을 통과, 교과서 사용을 허가받았다는 것은 학부가 정한 검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적어도 위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과서 서술 내용이 일본에 우호적이거나 민족주의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초등본국약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서지사항 외에 서술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이 교과서의

22) 문한별, 앞의 논문, 2019, pp.212~217.
23) 김경미, 앞의 논문, 2011, pp.52~53.
24) 김경미, 앞의 논문, 2011, pp.52~53.
25) 『대한매일신 보』 1909년 1월 30일 「교육주무자에게 고함」.

검정청원본과 최종 출판본을 비교, 분석하여 교과서 검정 과정과 검정 기준을 실제 어떻게 적용했는지, 검정에서 사열원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출간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등본국약사』가 검정 허가 역사교과서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교과서검정제 실시와 『초등본국약사』 발간

『초등본국약사』는 1909년 흥사단 편집부장이었던 박정동이 저술, 발간한 역사교과서이다. 총 2권 2책으로 구성되어 권1은 총 60쪽, 권2는 104쪽의 분량이며, 본문은 국한문혼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교과서의 겉표지에는 저자가 '흥사단편집부'로 표기되어 있지만 책의 판권에는 당시 흥사단 편집부장이었던 박정동이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26]

---

26) 박정동의 출생 연도는 명확하지 않다. 본관은 순천(順天), 호는 혜관(惠觀), 아버지는 헌릉 참봉(獻陵參奉)을 지냈던 박해규(朴海奎)로 알려져 있다. 1897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전라남도 남원군 공립소학교, 1898년 관립소학교, 1903년 한성사범학교 물리 교관, 융희학교 교감 등을 역임했다. 1908년 1월 기호흥학회 창립 당시 평의원으로 선임되었고, 같은 해 3월에는 교남교육회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그는 『기호흥학회월보』에 「지문약론(地文略論)」이라는 제목으로 지리학에 관해 6회에 걸쳐 연재했고, 『교남교육회잡지』에는 「물리학(物理學)」을 연재했다. 이와 같은 지리, 물리학 지식을 바탕으로 지리, 과학, 역사, 수신 교과서를 저술했다. 교과서 외에 『국제공법지(國際公法志)』, 『보통여자신찬가정학』을 역술하고 『척독완편척독완편(尺牘完編)』을 저술했다. 1910년 강제 병합 이후 시천교에 입문하여 종교 활동을 펼쳤으며, 『『용담결석찬(龍潭訣釋贊)』(1914)과 『천경정의(天經正義)』(1915)을 주석하고,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繹史)』(1915), 『시천교조유적도지(侍天敎祖遺蹟圖志)』(1919)를 저술했다.

〈표 1〉『초등대동역사』와『초등본국약사』출판본 및 검정청원본 서지사항

도서명	초등대동역사	초등본국약사 권 1	초등본국약사 권 1 (검정청원본)	초등본국약사 권 2	초등본국약사 권 2 (검정청원본)
저자	박정동	흥사단편집부 (박정동)		흥사단편집부 (박정동)	
발행일	융희3년 8월 12일	융희3년 9월 30일		융희3년 9월 30일	
발행소	동문사	동문관		동문관	
발행자	김태옥	김상천		김상천	
책수	1권	1권		1권	
가격	30전	17전		17전	
인쇄소	일한인쇄 주식회사	동문관		동문관	
검정일	융희3년 6월 10일 (학부검정)	융희3년 6월2일 (학부검정)		융희3년 6월2일 (학부검정)	

1907년 11월 유길준은 '국민개사(國民皆士)'를 위한 국민교육을 보급한다는 목적으로 흥사단을 창립하여 학교 설립, 교과서 편찬 등 교육계몽운동을 펼쳤다.[27] 편집부장이었던 박정동 혹은 흥사단 편집부 명의로 저술, 편찬한 교과서 중에는 검정에 통과하여 출판된『초등본국약사』,『초등본국지리』(1909),『초등이과』(1910) 등만이 알려져 왔다. 그런데 최근 유길준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 중에서『초등학농업대요』(1909),『보통학수신서』(1909),『초등학독본』(1909),『유치독본』(1909) 등 교과서 검정청원본이 발견되었다. 이들 교과서들은 검정에 통과하지 못하고 검정청원본 형태로만 남게

27)『황성신문』1907년 12월 1일「흥사단설립」.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8] 또 검정을 통과하여 출간된 『초등본국약사』와 『초등본국지리』의 검정청원본도 소장 자료 중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학부는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반포한 후 검정 기준을 내용상 크게 정치적 방면, 사회적 방면, 교육적 방면으로 구분하고, 기술 내용이 "한일관계와 두 나라의 친한 교정을 방해하고 또 비방하는 일이 없는지", "기교하고 편협하여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고동하는 일이 없는지", "일본을 배척하는 사상을 고동하고 또 본국사람으로 하여금 일인과 다른 나라사람을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하는 기록이나 말이 없는지"를 검열했다.[29] 이러한 검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 『보통학수신서』, 『초등학독본』, 『유치독본』 등은 모두 검정 불허되어 교과서로 출판되지 못했다.[30]

학부는 교과서 검정을 실시하면서 역사교과서를 국어, 수신교과서와 함께 민족의식과 반일적 사상을 고취하는 내용이 많은 '정치적 교과서'로 지목하여 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31] 그럼에도 『초등본국약사』는 흥사단의 독본, 수신교과서들과 달리 검정을 통과해 교과서 사용을 허가받았다. 『초등본국약사』의 검정청원본에는 검정 주체였던 사열원이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지시가 기록되어 있다. 검정청원본의 기술 내용, 사열원의 수정 및 삭제 요구, 그리고 교과서 최종 출판본을 비교, 검토해 보면 학부, 실질적으로는 통감부가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교과서를 검정했으며, 검정을 통해 통제하려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힐 수 있다. 또 『초등본국약사』가 검정허가 역사교과서였다는 점에서 검정불허 역사교과서들과 내용상

28) 김소영, 앞의 논문, 2019, pp.307~309.
29)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13일 별보 「교과서 검정의 조사」.
30) 김소영, 앞의 논문, 2019 ; 앞의 논문, 2020.
31) 『기호흥학회월보』 12, 1909년 7월, 「교과서의 내용에 관한 조사」.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초등대동역사』와『초등본국약사』출판본 및 검정청원본 목차

	초등대동역사	초등본국 약사 일	초등본국 약사 일 (검정청원본)	초등본국약사 이	초등본국 약사 이 (검정청원본)
1	단군	단군	단군	태조고황제의 창업	태조고황제의 창업
2	기자	기자	기자	태종대왕의 활자신주	태종대왕의 활자신주
3	애왕의 남천	애왕의 벌초	애왕의 벌초	세종대왕의 국문친제	세종대왕의 국문친제
4	마한시조 (부진한변한)	삼한	삼한	음악과 간의대	음악과 간의대
5	신라시조 (부석탈해김알지)	신라시조	신라시조	김종서의 북방개척	김종서의 북방개척
6	고구려시조 (부유리)	고구려시조	고구려시조	남이의 원사	남이의 원사
7	백제시조	백제시조	백제시조	이황의 도덕	이황의 도덕
8	가락국	신라탈해왕	신라탈해왕	이이의 선각	이이의 선각
9	고구려와 수의 전쟁	김알지	김알지	광국삼신의 외교	광국삼신의 외교
10	고구려와 당의 전쟁	을지문덕의 대파수병	을지문덕의 대파수명	**④-1임진의 난**	**④-2임진의 난**
11	신라의 통일	**①-1백제와 일본의 교통**	**①-2왕인의 일본문명개도 (백제와 일본의 교통으로 수정)**	**정충신의 토역**	**④-3귀선과 진천뇌 (삭제)**
12	김유신	양만춘과 당주의 전	양만춘과 당주의 전	**병자의난**	**⑤정충신의 토역(제11과로 수정)**

13	김양	신라김유신	신라김유신	**효종대왕의 북벌경영**	**⑥병자의난 (제12로 수정)**
14	견훤과 궁예	신라통일	신라통일	**이인좌의 난**	**⑦임경업의 의(삭제)**
15	고려태조의	견훤과 궁예	견훤과 궁예	**영조의 덕정**	**⑧효종대왕의 북벌경영(제13으로 수정)**
16	신숭겸	고려태조의 창업	고려태조의 창업	**정조시대의 문학**	**⑨이인좌의 난 (제14로 수정)**
17	고려의 통일	신숭겸의 장절	신숭겸의 장절	**정약용의 불우**	**⑩영조의 덕정 (제15로 수정)**
18	서희	서희의 일언각적	서희의 일언각적	**홍경래의 난**	**⑪정조시대의 문학(제16으로 수정)**
19	강감찬	강감찬의 대첩	강감찬의 대첩	**대원군의 집정**	**⑫정약용의 불우(제17로 수정)**
20	최충	최충의 흥학	최충의 흥학	**병인의 난**	**⑬홍경래의 난 (제18로 수정)**
21	김부식	윤관의 공업	윤관의 공업	**신민의 난**	**⑭대원왕의 집정 (제19로 수정)**
22	정중부	김부식의 편사	김부식의 편사	**외국의 통상**	**⑮병인의 난 (제20으로 수정)**
23	최충헌	김취려의 공덕	김취려의 공덕	**임오의 변**	**⑯신미의 요 (제21로 수정)**
24	박 이와 김경손	유교의 천명	**②김방경의 대공(삭제)**	**갑신개혁의 미수**	**⑰외국의 통상 (제22로 수정)**
25	유경과 김인준		**③ 유교의 천명 (제24과로 수정)**	**갑오개혁의 발단**	**⑱임오의 변 (제23으로 수정)**

26	삼별초			**개혁의 중지**	**⑲갑신개혁의 미수 (제24로 수정)**
27	김방경			**국호의 개칭**	**⑳갑오개혁의 발단 (제25로 수정)**
28	안유의 흥학			**㉓-1일본과의 신협약**	**㉑개혁의 중지 (제26으로 수정)**
29	정주학의 동래			**금상폐하의 등극**	**㉒국호의 개칭 (제27로 수정)**
30	신돈			**황태자의 일본유학**	**㉓-2일본과의 신조약(제28로 수정)**
31	폐왕우			**지방순수**	**㉔금상폐하의 등극 (제29로 수정)**
32	정몽주			**東籍田의 친경**	**㉕황태자의 일본 유학 (제30으로 수정)**
33	길재				**㉖지방순수 (제31로 수정)**
34	태조고황제				**㉗동적전의 친경 (제32로 수정)**
35	한성				
36	세종대왕				
37	임진난				
38	병자란				
39	양헌수의 전승				
40	어재연방전				
41	금상폐하즉위				

먼저『초등본국약사』권1의 검정청원본과 출판본을 비교해 보면 단원명의 수정이나 서술 내용이 삭제된 경우가 보인다. 예를 들어 검정청원본 제11과의 제목은 ①-2 "왕인의 일본문명개도"였는데 사열원은 이를 "백제와 일본의 교통으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32] 최종 출판교과서에서는 사열원의 요구대로 ①-1 "백제와 일본의 교통"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3]

이와 같이 단원명은 "왕인의 일본문명개도'에서 "백제와 일본의 교통"으로 수정되었지만 본문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 즉 백제 왕인이 유학을 일본에 전파하고 그 외에도 박사들이 학문과 기술을 일본에 전수했으며, 또 불교도 백제로부터 일본에 전해졌다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있다. 교과서 서술대로 고대 백제와 일본의 관계는 상호 문화 교류라기보다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던 백제가 선진 문물을 일본에게 전파한 것이다. 사열원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서술한 것을 용인하면서도 고대 백제의 문화가 일본 문화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목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했던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당시 대부분의 역사교과서가 "백제 문물의 일본 전파"라는 뜻으로 표제를 쓰고 있는데 반해『초등본국약사』에서는 "백제와 일본의 교통"으로 쓴 것은 "우리 민족과 일본은 고대로부터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34]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초등본국약사』도 검정을 청원하는 단계에서는 "왕인의 일본문명개도"라는 제목으로 백제가 일본에 문화를 전파했다는 것을 강조했으나 사열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1905년 이후 학부에서는 역사교과서를 별도로 편찬하지 않고 독본교과서 내용을 활용하여 역사를 교수하는

32)『초등본국약사』권1 검정청원본,「제11과 왕인의 일본문명개도」.
33)『초등본국약사』권1 출판본,「제11과 백제와 일본의 교통」.
34) 김여칠, 앞의 논문, 1984, pp.71~72.

것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학부에서 편찬한『국어독본』[35]과『일어독본』[36]에 역사 관련 서술이 포함되었는데, 이 두 교과서에서도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서술하면서 역사적으로 두 나라가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국어독본』에서는 삼한시대부터 일본과의 교통이 빈번했으며 삼국시대에 이르러 양국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져 서로 귀화하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서술했다. 또 당시 삼국은 문화가 일찍 발달하고 일본은 오히려 유치하여, 왕인과 같은 학자와 장공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문화를 계발해 주었다는 것이다.[37]『일어독본』권7의 제5과 "조선과 일본의 교통"에서도 고대 한국이 일본에 문화를 전해주는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서술했다.[38]

이처럼 학부 편찬 교과서에서도 고대 한국이 일본으로 문화를 전파했다는 사실을 서술한 것은 과거 한국의 문화적 우월성을 인정해서라기보다 고대부터 한국과 일본이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초등본국약사』의 백제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서술을 그대로 용인하고 제목만을 수정하도록 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서술이나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원 전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경우도 있었다. 검정청원본의 제24과는 ② "김방경의 대공"이라는 단원이었지만 사열원은 단원 전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39] 저자 혹은 편찬자는 사열원의 지시에 따라 이 단원을 삭제한 후 검정청원본의 제25과였던 ③ "유교의 천명"을 출판본의

35) 학부가 편찬한『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은 전 8권으로, 권1에서 권4까지는 1907년 2월에, 권5부터 권8까지는 1908년 3월에 발행되었다.
36) 학부가 편찬한『일어독본』은 전8권으로 구성되었으며, 1, 2권은 1906년에, 3,4권은 1907년 2월, 5권부터 8권까지는 1908년 3월에 발행되었다.
37)『국어독본』권6,「제2과 삼국과 일본」.
38)『일어독본』권7,「제4과 조선과 일본의 교통」.
39)『초등본국약사』권1 검정청원본,「제24과 김방경의 대공」.

제24과로 수정했다. 사열원이 단원 전체를 삭제하라고 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김방경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김방경은 고려 원종, 충렬왕대의 명장으로 1270년 개경 환도를 반대하던 삼별초를 진압하는데 공을 세웠다. 또 1274년 10월,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할 때와 1281년 제2차 일본 정벌시에 고려군을 이끌고 참전했다.[40] 사열원은 두 차례의 일본 정벌에 주장(主將)으로 참전했던 김방경에 대한 서술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박정동이 저술한 또 다른 역사교과서 『초등대동역사』에서는 김방경에 관한 서술이 삭제되지 않았다.

> 김방경은 麗朝元宗時 인이라. 성품이 충직하며 器宇가 寬弘하여 少節을 불구하고 事를 임함에 명단明斷하더니 별초군이 진도를 거함에 방경이 군사육천을 솔하고 剿滅하려고 왕하다가 해중에서 적을 猝遇하여 형세가 심히 급한지라. 방경이 적의 手에 死함이 義 아니라 하고 海에 投고자 하더니 其士卒이 爭救하여 禍를 得脫한 후에 更히 적을 碧波亭에서 大破하고 僞主溫을 斬하니 餘衆이 탐라에 入하여 內外城을 築하고 州縣을 擄掠하는지라 왕이 방경으로 원수를 拜하여 군사 만인을 率하고 追討하여 大破하니 賊魁는 自死하고 餘衆은 다 歸降하니라.[41]

『초등대동역사』는 〈표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초등본국약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검정을 청원하고 통과하여 교과서로 출판되었다. 두 교과서는 다루는 서술 시기의 하한과 분량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사립학교 초등학도용으로 교육대상층이 동일하고, 다루는 제재와 주제, 구성도 유사하다. 두 교과서를 검정하는 절차나

---

40) 이정신, 「원 간섭기 원종·충렬왕의 정치적 행적-김방경의 삼별초 정벌, 일본 원정을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10, 2008.

41) 『초등대동역사』, 「제27과 김방경」.

검정 기준도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방경'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교과서에서 허용된 제재나 내용이 다른 교과서에서는 삭제 혹은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실제 교과서 검정 상황에서 검정 기준뿐만 아니라 사열원 개개인의 성향, 가치관, 판단이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사열원에 따라 유사한 표현, 내용, 용어에 대해 허용하기도 혹은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던 것이다.[42]

'김방경'에 대한 두 교과서의 세부 서술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허용과 삭제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을 수 있다. 『초등대동역사』에서는 김방경이 삼별초를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로만 서술했지만 『초등본국약사』에서는 삼별초의 진압뿐만 아니라 몽골과 함께 일본을 정벌하는데 참전했던 활동을 기술했던 것이다.

『초등대동역사』의 검정청원본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검정청원 단계와 최종 출판본의 '김방경'에 대한 서술이 일치하는지, 혹은 『초등본국약사』와 마찬가지로 사열원의 수정 지시를 반영한 결과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초등대동역사』의 '김방경'에 관한 기술이 검정청원본에 실린 것과 일치한 것이든 혹은 사열원의 수정 요구를 반영한 것이든 최종적으로는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초등본국약사』를 검정한 사열원은 '김방경'을 전체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저자 혹은 편찬자는 이를 수용했다.

『초등본국약사』 권2의 검정청원본 제10과와 제11과는 각각 ④-2 "임진의 난", ④-3 "귀선과 진천뇌"라는 제목으로 임진왜란과 전쟁에서 사용된 무기인 거북선과 진천뢰를 설명했다. 사열원은 이 두 단원 중 "귀선과 진천뢰"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43] 출판본

---

42) 정근식, 「식민지검열과 '검열표준'」, 『검열의 제국』, 푸른역사, 2016, pp. 89~92.

43) 『초등본국약사』 권2 검정청원본, 「제10과 임진의 난」, 「제11과 귀선과

에서는 사열원이 지시한대로 “귀선과 진천뢰” 단원이 보이지 않지만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하지 않았을 뿐 제10과 “임진의 난”에 “귀선과 진천뇌”의 내용이 함께 서술되었다. 두 단원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적게는 1쪽, 많은 경우 6쪽, 평균 2-3쪽 분량인 다른 단원에 비해 총 12쪽에 달하는 분량이 되었다. 주요 내용은 임진왜란 발발 직전 조선과 일본의 상황, 이이의 양병 주장, 전쟁의 발발, 전쟁 초기 조선의 열세와 무기의 개발, 이순신의 활약, 의병활동, 명나라의 원군 파병,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전쟁의 종결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어 이순신의 귀선 제조와 활약, 박진의 진천뢰 제조와 활용 등을 서술하고 있다.[44] 사열원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귀선과 진천뇌”를 삭제하지 않고 “임진의 난”에 함께 서술하면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기도 했다. 제11과였던 “귀선과 진천뢰”가 삭제되면서 제12과와 제13과는 출판본의 제11과 제12과로 수정되었다.

이어 사열원은 권2 검정청원본의 제14과였던 ⑦ “임경업의 의”라 는 단원도 역시 삭제하게 하여[45] 15과였던 ⑧ “효종대왕의 북벌경영”이 제13과로 수정되고, 다른 단원들도 차례로 목차가 수정되었다. 그 결과 검정청원본에서는 총 34개 단원으로 구성되었던 내용이 일부 통합, 삭제되면서 출판본에서는 32개 단원이 되었다. 또 검정청원본의 제30과의 제목은 ㉓-2 “일본과의 신조약”이었지만[46] 출판본에서는 제28과 ㉓-1 “일본과의 신협약으로” 단원 제목이 수정되었다.[47]

교과서 검정은 단 한 차례만으로 허가, 불허가가 결정되는 것은

진천뇌」.

44)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10과 임진의 난」.

45) 『초등본국약사』 권2 검정청원본, 「제14과 임경업의 의」.

46) 『초등본국약사』 권2 검정청원본, 「제30과 일본과의 신조약」.

47)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28과 일본과의 신협약」.

아니었다. 학부는 1차 교과서 검정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교과서 발간을 결정했다. 첫째, 수정이 필요하지 않고 검정을 허가할 경우나 또는 검정을 불허할 경우에는 청원자에게 지령한다. 둘째, 수정을 한 이후에 검정을 허가할 경우에는 먼저 청원자 혹은 그 대리인을 소환하여 그 수정할 章句 사항을 지시한다. 단 이 경우에는 학부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검정 청원자의 편의를 위해 도서의 원고본도 청원을 받아들이지만 만일 해당 도서로 검정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인쇄제책을 한 후 간행본 2부를 먼저 학부에 제출하고, 사열한 후 지령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지령을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많은 책을 제작 간행했다가 검정 결과 문제가 있어 전부 수정하게 되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크므로 주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48]

실제 홍사단 편찬 교과서들 중에는 한 차례 이상의 검정과 수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용이 불허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유치독본』 검정청원본에는 사열원의 수정 요구가 본문에 수기로 기록되어 있고, 그 위에 띠지로 수정 사항을 반영한 또 하나의 본문이 부착되어 있다. 수정한 본문 위에도 사열원의 수정 지시가 적혀 있다. 또 유길준 소장 자료에는 『유치독본』 검정청원본 외에 또 한 질의 『유치독본』(이하 수정본)이 포함되어 있는데 검정청원본과 달리 수정본에는 "검정 청원"이라는 표기가 없다. 이 수정본 권1의 경우 청원본의 권1이 아닌 권2에 해당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교과서 본문은 사열원의 수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반영하여 재기술되었고, 삽화를 위해 여백으로 남겨뒀던 곳에는 삽화가 부착되어 있다. 『유치독본』의 저자 또는 편찬자는 수정본을 작성하여 검정을 재청원하거나 출판하려 준비했던 것으로 보

48) 『황성신문』 1908년 12월 26, 27일자 「교과용도서검정에 관한 주의」.

이지만 결국 출판하지 못했다.[49]

이와 같이 검정 후 교과서로 허가받지 못한 『유치독본』, 『초등 학독본』, 『보통학수신서』 등과 수정 후 교과서 사용이 허가된 『초등본국약사』는 모두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정을 받았다. 학부의 교과서 검정 기준은 크게 '교육적 기준', '사회적 기준', '정치적 기준'으로 나뉘었고, 그 가운데 사열원이 가장 주의를 기울인 것은 '정치적 기준'이었다.[50] 이러한 학부의 검정 방침을 고려할 때 검정 불허 교과서들은 주로 '정치적 기준'에서 '문제'가 있는 교과서로, 반대로 검정 허가 교과서의 경우 정치적 방면의 기준에서 '문제'가 없거나 혹은 허용할 만한 수준의 내용이 서술된 교과서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정청원본의 제32과, 출판본에서는 제30과로 수정된 "황태자의 일본유학"의 경우 『초등학독본』 검정청원본에도 같은 제재의 유사한 내용이 서술되었다. 『초등학독본』 권8 제6과부터 제9과까지 총 4개 단원은 "황태자전하의 일본유학"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황위에 오를 황태자에 대한 칭송과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의 주도로 황태자가 일본 유학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과 일본으로 유학가기 직전 소학교 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는 흥사단에 격려금을 하사하며 교육 사업을 독려했다는 사실 등을 기술했다.[51] 또 제10과 '권학가'에서도 황태자가 일본으로 유학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을 통해 충효의식을 갖추고 일가와 국가를 위한 인재로 성장할 것을 강조했다.[52] 『초등학독본』을 검정했던 사열원은 제6과부터 제10과까지

49) 김소영, 앞의 논문, 2020, p.35.

50)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13, 14일 「교과서검정조사의 착안처」.

51) 『초등학독본』 권8, 「제6과 皇太子殿下의 日本留學 1」, 「제7과 皇太子殿下의 日本留學 2」, 「제8과 皇太子殿下의 日本留學 3」, 「제9과 皇太子殿下의 日本留學 4」.

52) 『초등학독본』 권8, 「제10과 권학가」.

전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초등본국약사』의 "황태자의 일본유학"에서는 사열원이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본문에서는 황태자의 뛰어난 자질과 일본으로 유학하게 경위가 융희황제의 의지였다는 것, 황태자의 유학에 대한 일본의 호의만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53] 사열원은 "황태자의 일본유학"이라는 동일한 제재에 대해 『초등학독본』에서는 내용 전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초등본국약사』에서는 허용했는데, 이는 두 교과서를 검정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은 아니었다. 『초등학독본』에서는 "황태자의 일본유학"을 사실 자체보다는 황제와 황태자에 대한 충군의식과 충군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식을 형성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강조하기 위한 소재로 활용했던 것이다. 사열원은 삭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서술 내용이 충군의식과 애국심과 같은 국가의식을 고취하려는 것, 즉 '정치적 기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반면 『초등본국약사』에서는 "황태자의 일본유학"을 하나의 사실로 언급하며 한일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했으므로 '정치적 기준'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열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만을 수정한 후 『초등본국약사』의 교과서 사용과 발간이 허가되었다는 것은 검정청원본 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이 검정 기준, 특히 '정치적 기준'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정 기준에서 '정치적 기준'은 주로 한일관계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나 표현, 반일감정을 고취하는 내용의 유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초등본국약사』에서 역사상 한일관계나 일본에 대해 어떻게 서술했는지 그리고 검정 불허 교과서들의 서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

53)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30 황태자의 일본유학」.

4. 『초등본국약사』의 일본 관련 서술과 인식

앞서 〈표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1909년 9월에 『초등본국약사』가, 이보다 약간 앞선 8월에 또 다른 역사교과서인 『초등대동역사』가 출판되었다. 출판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초등대동역사』가 약 한 달 가량 앞서지만 검정일을 보면 『초등본국약사』가 6월 2일, 『초등대동역사』가 6월 10일로 거의 동시에 두 교과서를 저술, 검정을 청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제재와 내용에서 유사하지만 전체 기술 분량이나 구성에서는 차이가 있다.[54]

박정동이 같은 시기 두 가지 초등학도용 역사교과서를 저술, 출판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초등대동역사』가 다른 시대에 비해 당대사를 포함한 조선시대를 간략히 다루고 있는 점과 박정동 개인 명의로 발간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흥사단편집부장으로서 저술, 출판한 『초등본국약사』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초등본국약사』는 박정동의 저술인 동시에 교육계몽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흥사단편집부 명의로 편찬한 교과서였으므로 구성과 내용에서 저자뿐만 아니라 단체의 의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를 한 권 분량으로 구성하고, 서술하는 시대의 하한이 교과서가 출판되기 바로 직전인 1909년 1월 무렵까지였다는 것은 조선사, 특히 당대사 교육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54) 『초등대동역사』는 총 41개 과 중 단군에서 고려까지를 서술한 것은 총 33개 과였고, 조선에 대해서는 8개 과에 걸쳐 서술했다. 조선시대에서도 고종의 즉위 후, 즉 당대사라고 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된 단원은 3개 과에 불과했다. 반면 『초등본국약사』는 권1의 경우 총 24과로 단군에서부터 고려시대까지를, 권2에서는 총32과에 걸쳐 조선시대를 다루었고 그 중에서도 고종 즉위 후, 즉 당대사라고 할 수 있는 시기를 서술한 것이 14개 과였다. 분량면에서 단군과 고려까지는 『초등대동역사』가, 조선시대에 대한 기술은 『초등본국약사』가 더 많다.

볼 수 있다.

당대사를 기술한 교과서들 중에는 현채의 『동국사략』이 기술 분량이나 시대 하한에서 『초등본국약사』와 비교할 만하다. 『동국사략』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인 역사학자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補)가 저술한 『조선사』와 『조선근세사』를 역술한 것으로, 4권 4책으로 구성된 중등교육용 역사교과서였다. 1906년 6월에 초판, 1907년 10월 재판, 1908년 7월 3판이 간행되었고, 1909년 5월 5일자로 발간이 금지되었다. 이 책의 권3과 권4는 조선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권4의 내용이 당대사에 해당한다. 권4는 하야시의 『조선근세사』 상, 하 두 권 중 하권의 내용을 역술했지만 시대 범위와 서술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55]

먼저 서술 시대 범위를 비교해 보면 『동국사략』 초판의 경우 『조선근세사』에서 다루지 않은 청일전쟁 이후부터 책 출판 직전까지 약 10년간의 역사를 다루었다. 1907년 재판본에서는 '을사신조약', '헤아사건급선양' 등을 추가 서술하고, 1908년 3판에서는 '융희시사'를 10쪽을 더하여 초판보다 총 45쪽의 분량이 증가했다.[56] 또 『동국사략』은 하야시의 저술과는 달리 일본이 아닌 한국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서술했다.[57] 예를 들어 고대사에서 하야시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며 대가야가 5백년 간 일본의 보호를 받아왔다고 서술한 반면 현채는 임나가 대가야의 별칭이며 일본과 밀접한 왕래가 있었던 것이라고만 기술했다.[58]

하야시와 현채의 역사 인식과 서술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대사 부분이었다. 현채는 청일전쟁 이후 1908년까지 을사

55) 이신철, 앞의 논문, 2013, pp.128~139.
56) 이신철, 앞의 논문, 2013, pp.134~135.
57) 도면회, 「한국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적 기원」, 『한국문화연구』36, 2019, pp.26~27.
58) 도면회, 위의 논문, 2019, p.27.

늑약 체결과 통감부 설치, 고종의 강제 퇴위로 이어지는 일본의 침략 상황과 한국민들의 저항을 서술했다.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해 자결한 민영환. 조병세, 민종식과 최익현의 의병활동, 국채보상운동, 토지수탈에 대한 저항, 을사오적 암살단, 헤이그특사, 군대해산 이후 의병 투쟁 등을 상세히 서술했다. 현채는 이러한 역사 서술을 통해 일본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59] 『동국사략』은 「교과용도서검정규정」과 「출판법」에 의해 검정과 검열을 받은 후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壞亂할 우려", 즉 '치안방해'라는 이유로 발매와 반포를 금지 당했다.[60]

이와 같이 『동국사략』의 내용 중 검정과 검열 기준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시대와 서술 내용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성과 그에 대한 비판, 한국인의 저항 활동을 두드러지게 그린 당대사 서술이었다. 『동국사략』이 이러한 이유로 발매 및 반포를 금지 당했다면 같은 시기 검정을 통과하고 교과서 사용을 허가받은 『초등본국약사』의 역사 인식과 서술, 특히 검정 기준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당대사에 대한 인식과 서술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초등본국약사』는 다른 역사교과서들에 비해 당대사 서술 비중이 높은 편이다. 고종의 즉위 시점부터 1909년 초까지 여러 역사 사건들과 인물들을 다루고 개항을 통해 새로운 근대적 국제질서 속에 편입된 한국의 상황과 중국, 일본, 서구와의 외교관계 등을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 가운데 역사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비롯한 일본 관련 서술이다.

『초등본국약사』 권1에서 일본 관련 서술은 살펴본 바와 같이

59) 이신철, 앞의 논문, 2013, pp.141~143.
60) 문한별, 앞의 논문, 2019, pp.230~244.

검정청원본에서 "왕인의 일본문명개도", 출판본에서는 "백제와 일본의 교통"으로 제목이 수정된 제11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61] 검정청원본 권1에서는 고려시대 명장이었던 김방경의 일본정벌에 관한 내용이 서술되었지만 사열원의 지시에 따라 출판본에서는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초등본국약사』 권2에서는 조선의 개국부터 교과서가 발간되기 직전인 1909년 1월까지의 역사를 다루었는데, 일본과 관련된 첫 번째 서술은 임진왜란이었다. 먼저 제8과 "이이의 선각"에서는 이이가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군비를 갖춰 대비하고자 했으나 정부에서는 이이의 말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모함했다는 것과 이이가 유성룡에게 국사와 이순신의 뛰어난 능력을 알고 부탁했다는 내용을 서술했다.[62] 이어 일본의 조선 침략을 다룬 제10과 "임진의 난"에서는 임진왜란의 발발과 전개 과정, 전쟁의 종결까지를 상세히 서술했다. 전쟁 종결에 대한 서술은 일본군이 조선에서 물러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에 사신을 보내 화호를 청하여 양국의 관계가 예전과 같이 회복되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63]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검정청원본에서 별도의 단원으로 서술했으나 사열원이 삭제할 것을 지시했던 임진왜란시 유성룡과 이순신장군의 활약, 거북선과 비격진천뢰의 개발과 사용을 삭제하지 않고 뒤이어 서술하면서 앞의 내용과 중복되기도 했다.[64]

『초등본국약사』의 임진왜란에 대한 구성과 서술은 『동국사략』

61) 『초등본국약사』 권1 검정청원본, 「제11과 왕인의 일본문명개도」; 권1 출판본, 「제11과 백제와 일본의 교통」.
62)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8과 이이의 선각」.
63)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10과 임진의 난」.
64)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10과 임진의 난」.

을 비롯한 동시기 다른 역사교과서의 임진왜란에 대한 서술과 큰 차이가 없었다.[65] 즉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에 대해 일본의 침략성보다 이이의 양병설과 그에 대한 조선정부의 미온적인 대응과 같이 조선 내부의 전쟁에 대한 대비 부족을 지적하고, 전쟁 전개 과정에서 이순신을 비롯한 명장들의 활약, 거북선과 같은 무기의 개발, 의병 활동, 명군의 원군 파병, 강화교섭 등을 설명했다.[66]

한일관계 혹은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시기는 고종 즉위 이후의 역사, 즉 당대사였다. 권2의 제19과부터 제32과까지 총 14개 단원이 당대사에 해당하며, 그 중 9개 단원에서 일본에 관한 서술이 등장한다. 먼저 제22과 "외국의 통상"에서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기까지 한일관계와 조약 체결 과정을 설명했다. 먼저 개항 전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에서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등의 정한론이 비등했으나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 등이 반대했다고 일본의 내부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운양호 사건이 발생하여 조선과 일본 간의 화친하는 조약, 즉 "병자의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를 박규수와 오경석의 공으로 서술했다.[67]

또 '병자의 조약', 즉 '조일수호조규' 체결로 외교관의 한성주차와 인천 및 원산이 개항되어 "조선의 독립자주하는 권이 이를 인하여 비로소 천하만국의 공인하는 바"가 되었으며, 조선 조정도 외국, 즉 서구국가들을 이적시하는 종전의 인식을 바꿔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

65) 김경태, 「하야시 다이스케의 『조선근세사』와 현채의 『동국사략』에 나타난 임진왜란 서술 비교 검토」, 『역사교육연구』 36, 2020, p.50.
66)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10과 임진의 난」.
67)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22과 외국의 통상」.

가들과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서술했다.[68] '조일수호조규'가 일본의 포함외교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사실이나 조약 내용의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은 보이지 않으며, 일본과의 조약 체결로 조선이 '독립자주국'이라는 사실을 세계로부터 공인받고 서구와도 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하게 된 계기로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제23과는 "임오의 변", 즉 임오군란에 관한 서술이다. 군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조선 내 대원군과 민씨척족 간의 갈등과 조선정부의 재정 곤란으로 인해 군인들의 급료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무위대장 민겸호와 구식군대가 충돌하게 되었고, 군란이 확대되면서 일본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가 살해당하고 일본공사관도 습격당해 소각되는 등 일본 측의 피해를 서술했다. 이후 청병에 의한 군란이 진압되고, 일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수신사 박영효를 파견했다는 것, 그리고 일본과 청국이 자국공사관과 상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성에 군대를 주둔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상세히 서술했다.[69]

제24과는 "갑신개혁의 미수"에서는 임오군란 이후 조선 정계의 상황을 상술했다. 민태호, 민영목, 조영하 등이 청의 세력을 등에 업고 보수세력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 '신진소년'으로 일본의 협조를 빌어 "개명한 새법"을 행하고자 했다고 서술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을 '개혁당'으로 지칭하며 개혁을 위해 정변을 일으켰다는 것과 일본의 개입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장대로 "일본공사가 상명을 응하여 그 병을 이끌로 궐내에 입"하였다고 서술했다.[70] 이 서술은 갑신정변 사후처리 과정에서 조선과 일본 간의 최대 현안이 된 소위, 교지문제,

68)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22과 외국의 통상」.
69)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23과 임오의 변」.
70)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24과 갑신개혁의 미수」.

즉 갑신정변이 발발한 1884년 12월 4일(양력) 밤에 고종이 친필로 일본공사의 호위를 요청했다는 '日使來衛'라는 네 글자 교지의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것이다. 일본의 주장대로 고종이 친필로 '日使來衛'라는 교지를 내린 것이라면 일본공사관 수비대가 무단으로 창덕궁에 난입한 사건에 대해 일본공사 다케조에와 '난당', 즉 급진개화파가 모두 죄를 면하고, 12월 6일 새벽에 영의정 홍순목이 청국 군대에 국왕의 구출을 요청한 일과 청국 군대가 그에 응해 일본군대와 교전을 벌인 일이 모두 명분을 잃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교지의 진위 여부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었다.[71]

이러한 교지의 진위 여부에 대한 한일 간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일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서술한 것이다. 반면 청군에 대해서는 "청장 원세개가 老成人의 餘黨을 도와 또한 군사를 이끌고 대궐을 범"했다고 하여 청군이 조선의 궁궐을 침범했다고 서술했다. 정변에 실패한 '개혁당'의 홍영식과 박영교가 죽고, 박영효, 김옥균, 서광범 등이 일본으로 망명한 상황과 정변 과정에서 일본인이 살해당하여 조선 측에서 배상금을 지불하고 한성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서술했다. 이어 일본과 청국 사이에 체결된 천진조약의 내용 가운데 청일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파병하게 될 경우 상대국에 알린다는 조항을 설명하면서 이 조항으로 인해 갑오년의 청일전쟁의 요인이 되었다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72]

제25과는 "갑오개혁의 발단"이라는 제목 아래 먼저 개혁 실시의 배경으로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 발발을 서술했다. 동학당이

71) 김종학,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와 갑신정변-미간사료 『井上角五郎自記年譜』에 기초하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3-1, 2014, pp. 173~175.

72)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24과 갑신개혁의 미수」.

지방관의 학정으로 인해 봉기했으나 당시 집권층은 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청국에 원군을 청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정부에 요청에 응해 청국에서 군대를 파견한 것이 천진조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일본군도 출병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청일전쟁 발발 원인을 조선정부가 청군에게 철병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일본과 조선이 함께 동맹을 체결했다고 서술했다. 이러한 기술은 청일전쟁의 발발 원인을 일본이 아닌 청국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실제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다. 즉 청은 조선정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철병하려 했으나 일본이 청에 공동으로 조선을 개혁시킬 것을 요구했다. 청이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일본이 청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했던 것이다. 조선과 일본의 동맹 체결도 사실상 일본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것이었다. 또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관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독립을 완성"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김홍집을 중심으로 박영효, 서광범 등이 귀국하여 중앙관제와 지방제도, 군제 등을 개혁했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중지되었다고 설명했다.[73]

이어지는 제26과도 "개혁의 중지"라는 제목으로 갑오정권이 무너지고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상황을 서술했다. 개혁을 주도했던 김홍집, 어윤중의 죽음과 김윤식이 유배당하고 조희연, 유길준, 장박 등이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개혁에 반대했던 보수세력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연좌법 폐지와 같은 개혁정책을 되돌리려 하였으나 타국의 시선을 의식하여 모두 변경하지 못했다고 서술했다.[74]

이와 같이 두 단원에 걸쳐 1894년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의

---

73)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25과 갑오개혁의 발단」.
74)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26과 개혁의 중지」.

발발, 갑오개혁의 실시와 추진 과정, 개혁의 실패를 서술했다. 하지만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던 일본의 조선 침략 의도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과 개혁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서술했던 것이다.

『초등본국약사』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원은 제28과 "일본과의 신협약", 즉 을사늑약의 체결에 관한 서술이었다.

> 김홍집의 죽은 후 십여년 간에 내치는 그 도를 잃고 외교는 그 방책을 그릇하여 국가의 위태함이 극진하더니 및 甲辰 春에 일본이 俄羅斯의 동방경영을 반대하여 병력으로써 그 욕심을 억제할 새 인천바다에서 그 군함 3척을 깨뜨리고 연하여 육지 싸움에 長驅大進하여 여순구를 함락하고, 봉천성을 취함에 합중국의 소개로 일본과 아라사의 양국이 평화하는 조약을 정하니라. 이 전쟁이 起함에 조정이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我國의 부강을 협조하는 의로 일본과 조약을 結하여 양국의 친밀한 交誼를 협정하니 이는 을사의 오조약이라 謂하나니라.[75]

위의 서술은 1904년 러일전쟁 발발부터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식민지 전단계인 '보호국'으로 만든 을사늑약 체결까지를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서술했다. 러일전쟁이 러시아의 동아시아 팽창 정책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며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평가하면서 을사늑약이 한국의 부강을 돕기 위해 한일 간에 체결한 조약이라는 것이다. 을사늑약에 대한 『초등본국약사』의 인식과 서술은 일본 식민사관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받는 『동국사략』의 을사늑약에 대한 서술보다도 일본의 논리를 더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국사략』에서는 '을사신조약'이라는 제목하에 을사늑약 체결에 반대하여 민영환을 비롯해 조병세, 홍만식, 이한응 등이 자결한 사실과 을사오적 암살 미

75)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28과 일본과의 신협약」.

수 사건, 의병 활동 등 한국민의 저항을 상세히 기술했다.[76] 반면 『초등본국약사』에서는 이러한 반일운동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을사늑약을 동양평화와 한국의 부강을 위해 한일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조약으로 서술했던 것이다. 러일전쟁과 을사늑약에 대한 『초등본국약사』의 서술은 유근이 저술한 『신찬초등역사』(1910)의 서술과도 유사하다.

> 時에 俄羅斯가 만주에 勢를 占하여 점점 남하하여 我國을 侵할 형세가 有함으로 일본은 此에 반대하고 我國을 보전코저 하여 遂히 양국의 交誼가 파열되여 인천 海面에서 일본군함이 俄國군함을 격파하고 또 북으로 進하여 압록강을 渡하여 九連城에서 俄兵을 破하고 여순을 陷하고 進하여 奉天에서 대승을 得하였으나 드디어 俄國과 和約을 結하니라. 此전쟁이 起함에 我朝廷은 동양의 평화를 확립하고 또한 我國의 부강을 협조할 意로써 일본과 조약을 結하여 양국의 친밀한 交誼를 협정하니 此是 을사오조협약이오 其後에 我國 정부에서 다시 칠조협약을 定하니 自是로 일본의 통감은 我國에 來駐하여 정치의 지도를 행함으로 양국의 친밀이 愈厚하니라.[77]

『신찬초등역사』도 1910년 2월 28일자로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용 역사교과서로, 을사늑약과 통감통치에 관한 우호적 인식과 서술이 『초등본국약사』와 거의 일치한다.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두 교과서가 모두 일본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일본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우호적으로 서술했다는 것은 통감부가 교과서 검정제를 실시한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교과서만이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찬초등역사』는 을사늑약뿐만 아니라 고대사 서술에서 임나일본부설을 일본의 주장대로 서술하거나 운요호사건을 일본 군함이 식수를 구하기 위해 강화도 해

76) 이신철, 앞의 논문, 2013, pp.141~142.
77) 유근, 『신찬초등역사』 권3, 「제84과」.

역에 나타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초등본국약사』의 정미7조약에 대한 서술에서도 일본의 침략성에 대한 인식이나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제29과 "금상폐하의 등극"에서는 고종황제가 황태자에게 양위한 사실과 정미7조약을 체결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고 일본인을 관리로 고용하게 되었으며, 일본에 망명했던 국사범들도 모두 사면되었다고 설명했다.[78] 고종황제의 퇴위가 헤이그특사사건을 빌미로 일본에 의한 강압적인 퇴위였다는 것, 정미7조약 체결과 후속 조치로 통감의 권한이 더 강화되고 사법권과 경찰권의 위임, 일본인 차관 채용,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등 일본의 침략성을 보여줄 만한 서술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초등본국약사』는 근대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갈등이나 대립 구도가 아닌 협력의 관계로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일본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서술은 제30과 "황태자의 일본유학"과 제31과 "지방순수"에서도 이어졌다. 먼저 "황태자의 일본유학"은 1907년 12월 영친왕이 일본의 강요로 인질이나 다름없는 처지로 유학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순종황제의 명에 의해 유학하게 된 것으로 서술하고, 이어 "일본황제께서도 대희하셔 우리 황태자를 예우하심이 심중"하다고 하여 한일관계의 돈독함을 강조하는 서술을 이어갔다.[79]

"지방순수"에서는 1909년 1월 행해진 순종황제의 서북순행과 남순행을 자세히 기술했다. 순행 과정에서 "일본국 천황께서는 함대를 특파하셔 我 聖上의 天覽에 供케 하시고 親電으로써 盛典을 賀하시니 양국 황실의 친교가 敦睦을 益加하시며 또 아국에 거류하는 일본관민 등은 亦皆誠心으로 祗迎하는 意를 奉表하

78)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29과 금상폐하의 등극」.
79)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30과 황태자의 유학」.

니 양국인민의 相愛하는 정이 이로 유하여 愈密"하다고 하여 황제순행에 대한 일본천황과 재조일본인들의 호의를 강조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기술했다. 또 순행의 효과로 국법을 범하는 '폭도', 즉 의병도 귀순하는 자가 계속되었으며, 단발령을 내렸으나 어리석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니 황제의 斷髮戎裝을 보고 바로 단발하여 개혁하려는 황제의 뜻을 받들었다고 기술하였다.[80]

앞서 황태자의 일본 유학과 마찬가지로 1909년 1월 순종황제의 두 차례의 순행도 황제의 의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조칙을 통해 황제가 순행을 결정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으나 실제로는 통감 이토 히로부미와 총리대신 이완용이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이다. 통감부와 친일내각이 황제의 지방 순행을 추진한 이유는 당시 삼남지방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의병 활동을 황제의 순행을 통해 진정시켜보려는 의도에서였다. 『초등본국약사』에서 "국법을 범하는 폭도"라고 표현했던 삼남지방의 의병은 일본의 통감통치에 저항하며 치열하게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순행을 통해 '보호국' 상황에서도 대한제국 황제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통감통치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충군의식'을 이용하여 복종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81]

하지만 이토와 이완용의 의도와는 달리 한국민들은 전례 없는 황제 순행에 의구심을 가졌다. 남순행시 순종황제는 부산과 마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일본함대를 방문했다. 이 함대는 교과서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파견된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민들 사이에서는 순행 소식이 알려지는 순간부터 황제를 일본으로 납치하려는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여 황제가 탄 열차의 운행을 막

80) 『초등본국약사』 권2 출판본, 「제31과 지방순수」.

81) 김소영, 「순종황제의 남·서순행과 충군애국론」, 『한국사학보』 39, 2010, pp.163~165.

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또 부산에 도착한 황제가 일본 군함에 승선하자 부산인민들이 목선 50여 척을 준비해 군함을 둘러싸고 황제의 납치를 막으려 하기도 했다.[82] 통감부는 황제의 권위와 한국민들의 충군의식을 이용하여 의병활동을 약화시키고 '단발령'과 같은 '시정개선'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황제 순행에 대한 한국민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통감부의 의도와는 달리 순행 과정에서 표출된 충군의식은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넘어 애국심,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반일감정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5. 맺음말

19세기 말 한국에서도 서구식 학제와 교육 내용을 수용하여 근대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근대교육의 주요 목표는 '국민' 형성과 통합, 그리고 국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국가구성원들에게 역사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게 하여 '국민'으로서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게 하는 자국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갑오개혁 시기부터 조선정부는 소학교 교수과목에 '본국역사'를 포함시켜 본격적으로 자국사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를 비롯한 민간에서 역사교육에 필요한 교과서를 활발히 편찬하기 시작했다. 자국사에 대한 관심과 역사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갔지만 을사늑약 체결 후 통감부가 한국인들의 민족교육을 통제하려는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역사교육의 향방은 달라져 갔다.

통감부는 한국인들의 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각종 법령을 제정, 반포했는데, 그 가운데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은 역사교과서를 포

82) 김소영, 위의 논문, 2010, pp.169~170.

함한 교과서 편찬 및 발간과 관련된 법령이었다. 교과서 검정제를 실시하면서 많은 역사교과서가 사용이 불가능해지거나 발간을 허가받지 못했다. 반면 박정동이 저술한 『초등본국약사』는 검정을 통과하여 발간된 역사교과서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본국약사』의 검정청원본을 분석하여 교과서 검정 과정과 검정 기준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최종출판본과 비교하여 학부 검정을 거치며 책의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초등본국약사』 검정청원본에서 사열원이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지시했던 표현이나 서술은 거의 일본과 관련된 것으로 교과서 검정 기준 중 '정치적 기준'을 적용한 결과였다. 『초등본국약사』도 검정청원본 단계에서는 '정치적 기준'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이나 내용이 있었지만 사열원이 요구에 따라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재검정을 통과하고 교과서 사용이 허가되었던 것이다.

『초등본국약사』의 검정청원본과 최종 출판본을 비교해 보면 사열원의 지시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과서 저자 및 편찬자들이 검정제를 통해 교과서 내용을 통제하려는 통감부의 의도에 반발하고 저항하면서도 일정한 타협을 통해 자신들이 목적한 바, 즉 교과서를 출판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정동이 저술한 또 다른 교과서들인 『보통학수신서』, 『초등학독본』, 『유치독본』 등도 검정 후 사열원의 지시에 따라 내용과 형식 등을 수정했지만 교과서 사용을 허가받지 못했다. 반면 『초등본국약사』가 몇 가지 사항만을 수정하고 교과서 사용 및 출판이 허가되었다는 것은 검정청원본 단계부터 자기 검열을 통해 내용을 서술하여 검정 기준, 특히 한일관계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나 표현, 반일 감정을 고취하는 내용의 유무를 판단하는 '정치적 기준'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초등본국약사』의 일본 관련 내용은 주로 고종 즉위 후, 즉 당대사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초등본국약사』와 유사한 분량과 시대 하한으로 당대사를 서술했던 현채의 『동국사략』, 유근의 『신찬초등역사』 등과 한일관계, 일본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동국사략』은 일본인 역사학자 하야시가 저술한 『조선사』와 『조선근세사』를 역술했지만 당대사 서술에서는 다루는 시대 범위나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다. 『동국사략』은 일본의 침략 상황과 한국민들의 저항을 서술해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동국사략』은 검정과 검열을 받은 후 이러한 서술로 인해 발매와 반포를 금지 당했다.

반면 『신찬초등역사』는 『초등본국약사』와 마찬가지로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였다. 『신찬초등역사』는 고대사에서 임나일본부설을 일본의 주장대로 서술하고, 운요호사건, 러일전쟁, 을사늑약 체결, 통감통치 등 일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우호적으로 서술했다. 『초등본국역사』도 러일전쟁, 을사늑약과 통감통치에 대해 『신찬초등역사』와 유사하게 서술했고, 갑신정변, 갑오개혁에 대해서도 일본의 주장에 따라 한일관계를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이어 정미조약, 고종황제의 퇴위, 황태자의 일본 유학, 순종황제의 순행과 같은 일본의 침략의도와 식민통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에 대해서도 한일관계를 갈등이나 대립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설명했다.

이처럼 『초등본국약사』, 『초등대동역사』, 『신찬초등역사』와 같이 통감부가 교과서 검정제를 실시한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역사교과서만이 검정을 통과하여 자국사교육에 사용될 수 있었다. 하지만 1910년 국권 상실 이후 이러한 교과서들마저도 검정 무효화되면서 사용이 금지되었고, 한국인에 의한 자국사 교육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1. 자료

『구한국관보』,
『대한협회월보』
『서북학회월보』
『기호흥학회월보』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현채, 『동국사략』, 1908
박정동, 『초등본국약사』 검정청원본, 1909
박정동, 『초등본국약사』 출판본, 1909
박정동, 『초등대동역사』, 1909
박정동, 『초등학독본』 검정청원본, 1909
유근. 『신찬초등역사』, 1910
학부,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 1907, 1908
학부, 『일어독본』, 1906, 1907, 1908

2. 저서 및 논문

최덕수 외, 『근대 한국의 개혁 구성과 유길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정근식 외, 『검열의 제국』, 푸른역사, 2016
김흥수, 「한말의 역사교과서 편찬」, 『역사교육』 33, 1983
김여칠, 「1906년 이후의 국사교과서에 대하여」, 『역사교육』 36, 1984
이정신, 「원 간섭기 원종·충렬왕의 정치적 행적-김방경의 삼별초 정벌, 일본 원정을 중심으로-」, 『한국인물사연구』 10, 2008,
양정현, 「개화기 역사 교과서의 당대(19세기) 인식」, 『내일을 여는 역사』 35, 2009
김소영, 「순종황제의 남 · 서순행과 충군애국론」, 『한국사학보』 39, 2010
김경미, 「통감부의 초등학교 역사교육정책과 역사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9, 2011
유영옥, 「개화기 국사 교과서의 年紀法」, 『역사와경계』 79, 2011
이신철, 「대한제국기 역사교과서 편찬과 근대 역사학」, 『역사교육』 126, 2013

김종학,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와 갑신정변-미간사료 『井上角五郎自記年譜』에 기초하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3-1, 2014
김두리, 「근대 교육의 국가주의적 성격과 역사학습」,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김소영, 「근대 한국의 교과서 검정 제도 성립과 수신교과서 검정」, 『사림』 68, 2019
도면회, 「한국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적 기원」, 『한국문화연구』36, 2019,
문한별, 「일제강점기 초기 교과서 검열을 통해 본 사상통제의 양상」, 『Journal of Korean Culture』 44, 2019
김경태, 「하야시 다이스케의 『조선근세사』와 현채의 『동국사략』에 나타난 임진왜란 서술 비교 검토」, 『역사교육연구』 36, 2020
김소영, 「통감부 시기 교과서 검정제도와 독본교과서 검정 청원본 분석」, 『한국근현대사연구』 93, 2020.

(투고일: 2020. 8. 14 심사완료일: 2020. 9. 16 게재확정일: 2020. 9. 18)

김소영
소 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무처 조교수
주 소: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수연구동 708호
전자우편: soyo001@hanmail.net

[Abstract]

The Publication of the Korean History Textbook and Textbook Authorization in the Period of Residency-General

Kim, So-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dure of textbook screening, the application of textbook screening criteria and what has changed in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the textbook by analyzing final publication and the screening copy of a *Chodeung-bonkuk-ryaksa(Elementary Condensed History of Our Country)* written by Park Jeong-dong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Regulations on the Textbook Screening" in September 1908.

Chodeung-bonkuk-ryaksa, accepted Japanese arguments on historical events related to Japan in a friendly way, and expl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s cooperation rather than conflict or confrontation. This textbook was authorized to be used and be published after modifying only a few points pointed out by Japanese censor, which means there was nothing that could be a critical 'problem' in the 'political criteria.' However, after the loss of national sovereignty in 1910, even this textbook was banned from being used as the approval was invalidated, and education of their own history by Koreans was no longer possible.

Key words: Park Jeong-dong, *Chodeung-bonkuk-ryaksa, Chodeung-daedong-yeoksa, Shinchan-chodeung-yeoksa, Dongguk Saryak,* Regulations on the Textbook Screening, Education of Korean History